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

저자 (Authors)	양명수
출처 (Source)	기독교사상 36(10) , 1992.10, 138-146(9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기독교서회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137239
APA Style	양명수 (1992).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 기독교사상, 36(10), 138-146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1/08/11 10:4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 — 종말과 사회 윤리 —

양 명 수
(목원대 강사·윤리학)

믿음은 이성적이지만 반이성적이지는 않다

요즈음 때를 정해 놓은 종말론자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건전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볼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한다. 믿음은 이성을 넘어 있지만 반(反)이성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다. 생각해야 이상한 데 빠지지 않고, 생각해야 믿음이 성장한다. 생각해야 믿음이다. 뿐만 아니라 것처럼 정상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사건을 통해 기독교의 믿음이 원지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된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다. 종말론이 문제가 아니라 때를 정해 놓은 종말론자들이 문제다. 이 글에서 우리는 그들을 사회 윤리의 관점에서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명제를 명백히 하고 몸말에 들어가야겠다. 먼저 그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곧 문제거리로 단죄할 수는 없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믿음 그 자체가 꼭 정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병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정상'이란 말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정상'이란 말이 '평상성' 또는 '일상성'을 가리킨다면 믿음을 표현하는 말로는 적합하지 않다. 많은 성경구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믿음은 결코 평상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않다. 믿음은 평범한 나날의 삶의 행태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인다(고전 1:23). 믿음은 자연스럽게 아니다. 자연적인 사람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인다(고전 2:14절 새번역). 믿음의 사람은 때로 경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삼하 6:22 공동번역), 술취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행 2:13). 그래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요즘 문제 를 일으키는 종말론자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곧 단죄할 수는 없다..

믿음은 윤리이기에

믿음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곧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야 기독교 신앙이다.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해도 곧 반합리가 아님이 보여야 한다. 그 두 순간을 잇는 것이 윤리다. 믿음은 윤리다. 처음에 이상하게 보인 믿음은 그 윤리성으로 말미암아 '이상'과 '정상'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이상한 데 설득력을 지닌다. 호소력을 지닌다. 이미 배척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한 사건, 믿음은 남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행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건이 된다.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사건이 된다. 그러므로 만일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계속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다면 문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믿음이 들어온 지 수 세대를 지났는데, 오늘날 상식 있는 사람들의 공격 목표가 된다면 문제다. 믿음은 상식을 넘어 서지만 결코 몰상식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때를 정해 놓은 종말론자들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시한부 종말론을 비판하는 까닭은

그 다음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을 해명해야겠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의 윤리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들을 어떠한 교리로 단죄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다 짚어 하나하나 교리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믿는 바를 언어를 통해 명문화한 교리는 대개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 언어가 원래 가리키려는 것을 해하지 않으려면 해석되어야 한다. 교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 성서도 교리도 끊임없이 해석되어야 한다. 설교는 성서를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삶의 뜻을 주는 것이다. 교리나 성서를 그대로 읽는 게 아니다. '뜻'을 잘 살려 해석할 때 '힘'이 난다. 성령은 그 일을 주관한다. 틸리히가 말한 대로 성령은 '뜻'과 '힘'의 통일이다. 그때 그 해석의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 윤리성이다. 건전한 해석의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것도 윤리성이요, 제 멋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것도 윤리성이다. 해석은 윤리와 함께 윤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하는 물음이 성서 해석의 동기로 최종판단 기준이라는 말이다. 그 물음은 결국 삶의 '의미'와 연결된다. 윤리는 '뜻'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윤리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성 관제

가 문란하다거나 아비를 몰라본다거나 윗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따위의 얘기가 아니다. 기독교의 윤리성은 기존 규범에 충실한 그런 도덕과 다를 수 있다. 우리는 도덕과 겹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덕을 뒤엎어야 윤리적이다. 윤리란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삶과 세상을 긍정하여 새롭게 하는 힘을 가리킨다. 한편 윤리적 관점은 법적 관점과 다르다. 아이들이 가출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몰래 빼내는 따위의 일이 발생했을 때 비로서 법이 손을 낸다. 법 조항에 걸리는 사항이 있어야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 현상은 대개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이 손을 대기가 어렵다. 그러나 윤리적 관점은 그 이전부터 논의될 성질이다. 이미 기존 교회들도 안고 있던 문제다.

둘째로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출현이 우리 사회의 윤리성 결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가. 여기서 사회 윤리란 사회 정의를 이른다. 그러한 순서를 따라 글을 진행해 보기로 하자.

기독교의 종말론 : '시간 끝'에서 '끝 시간'으로, '저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시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다.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의 다른 말씀을 믿듯이 재림 약속도 믿는다. 시간의 끝에 일어난 그 일을 믿는다. 그리고 기다린다. 이 세상의 모순에 피로울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 종말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자인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분명히 앞으로 올 나라다.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와 일치할 수 없다. 종말은 말 그대로 마감하는 끝이다. 이 역사가 마감되고 마치는 때다. 성서의 하나님은 사람을 주체로 세워 역사를 맡기셨다. 역사는 사람이 하기에 달렸다. 물론 하나님이 한다. 그러나 사람이 한다. 그러던 것이 종말에는 끝난다. 역사가 단절되는, 또는 역사가 비약되는 우주적 사건이 발생한다. 그때에 말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때'를 믿는다. 그러면 '그때'와 '이때'는 무슨 관계인가? 먼저, 그때와 이때를 연결하는 '믿음'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공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때를 염두에 두고 이때를 산다. 그러면 그 연결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때는 그때를 기다리며 소홀히 해도 좋은 준비 시간에 불과한가? 그때만 100퍼센

트이고 지금은 100퍼센트가 아닌가? 예를 들어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면 그때를 위해 이때를 포기해야 하는가? 날짜를 정해 놓은 것도 문제지만 그때와 이때의 관계 설정이 더 문제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모두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날짜를 정한 것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안고 있던 비윤리성이 첨예하게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부터 이야기 해서 그때를 확신할수록 이때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 끊고, 저지른 잘못의 용서를 구하고, 남과 화해하고 정의를 확립한다. 그때는 이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독교 종말론이 갖는 윤리성이다. 그때에 대한 믿음은 그때의 구조를 이때에 옮겨 살도록 부추긴다. ‘시간의 끝’에 대한 믿음은 지금을 ‘끝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 실현에 앞장선다.

성서의 종말은 상징이기에 해석을

언어는 상징이다. 성서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성서의 종말 얘기는 상징이다. 상징은 해석되어야 한다. 성서의 종말 얘기뿐 아니라 모든 얘기가 상징이다. 종말 얘기가 상징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다. 성서에 쓰여 있는 얘기를 통해 말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언어를 통해 다 표현될 수 없다는 얘기가. 사실이나 아니냐 하는 도식으로는 성서의 뜻을 살릴 수 없다. 성서의 진리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다.” 언어는 무언가 말하기 위해 들어 쓴 수단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다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무엇’과 언어 끝 성서의 이야기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그 점에서 종말 이야기는 상징이라는 것이다. 신화라기보다는 상징이다. 그러므로 비신화화하기 보다는 해석해야 한다. 해석이란 상징을 푸는 것이다. 언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언어를 통해 ‘뜻’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뜻을 찾는 것이 해석이다. 해석을 통해, 언어와 언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그 무엇의 간격을 좁힌다. ‘뜻’을 찾음으로써 그리한다. 성서의 비밀이 풀린다.

뜻을 찾을 때 미래는 현재화하기에

뜻을 찾는 순간, 미래의 사건은 현재화한다. 뜻은 실존적이다. 해석되어 나온 ‘말의 뜻’은 ‘삶의 뜻’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해석에는 삶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자의 주체적 참여가 있다. 그래서 실존적이다. 말의 뜻이 삶의 뜻과 관련되어 풀리면서 ‘그때’에 있을 우주적 사건이 지금 나의 실존적 사건이 된다. ‘뜻’이 서면서 생명력이 넘친다. 사람에게는 뜻이 생명

이다. 삶의 뜻 곧 삶의 의미가 없으면 살아도 죽은 삶이다. 삶의 뜻을 전혀 찾지 못할 때 자살까지 한다. 종말의 충만은 지금 내게 충만한 삶의 의미를 준다. 그래서 살아도 죽었던 삶에서 삶다운 삶, 곧 충만한 삶으로 옮기운다. 삶의 문제다.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리는 문제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문제다. 저 세상을 믿지만 그 믿음은 새로운 이 세상 곧 새 세상을 만든다. '뜻'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 뜻에 따라 살아 세상을 살린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 살 '맛'을 낸다. 기독교 종말 신앙이 갖는 윤리성이다. 윤리가 있는 곳에 '뜻'이 있고 살 '맛'이 있다.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의 복음에 따라, '그때'와 '이때'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이 세상은 떠날 곳도 아니고 적당히 지낼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곳이다. 세상의 부조리가 너무 클 때,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늘나라나 갈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선택 싸움을 싸운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곳이다. 교회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 삶, 곧 사람은 하나님이 그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존재다. 하나님이 사람의 목적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목적으로 삼으셨다. 사람과 삶은 이처럼 귀한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지? 사람 곧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점을 빼고 하나님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점만 강조하지 않는지? 그러한 의식 속에서, 한 때 고르바초프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들리더니 요즘은 유럽 통합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한다는 말이 들린다. '그때'와 '이때'의 관계를 잘못 설정한 우리나라 교회의 단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반적 분위기가 더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다. 둘은 어느 정도 연속선상에 있다.

종교적 고백은 사회적 요소로 해소될 수 없지만

종교 현상을 사회 현상으로 푸는 것은 조심스런 일이다. 종교는 주관적인 고백의 차원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사회 조건과 관계시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객관적 조건) 그랬지(주관적 고백)'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첫째, 종교언어는 상당히 상징적이어서 설사 사회 조건이 동기가 되었어도 철저히 은폐된다. 둘째, 사회조건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고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모든 신앙 고백은 그 순수성을 잃고 사회적 이득과 연결된 것이 되리라. 종교는 사회학으로 완

전히 환원되리라. 그러나 종교는 결코 사회학으로 환원될 수 없다. 사회학적 요소를 가질 수 있으나 사회 현상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완전히 사회 현상으로 둘 수는 없다.

앞서 말한 대로 시한부 종말론은 '그때'와 '이때'의 관계를 잘못 설정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인 고백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서 우리는 사회학적 요소를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극단적인 운동은 사회 상황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또 안정된 사회에서는 그런 종교적 환상에 사람들이 끌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민중의 관심을 끈 것은 사회 불안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얘기다. 안정된 사회란 사회 정의가 확립된 사회를 말한다. 불안한 사회란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회다. 그 점에서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는 사회 윤리와 관련된다. 사회 윤리란 사회 정의를 가리킨다.

부정의는 좌절과 불안정을

사회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좌절감이 자리잡는다. 사람은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는 자기 몫이 적어도 승복한다. 그러나 자기의 불행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생각될 때 승복하지 않는다. 승복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그것이 시정될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좌절한다. 불안한 사회다. 좌절을 일으키는 부정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생긴다. 첫째,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다. 둘째, 남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꾸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부를 축적할 경우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예를 들어 뇌물을 써서 자리를 얻는다거나, 폭력으로 정권을 얻는 일이 빈번할 때, 그리고 그것이 시간만 지나면 곧 정당화될 때 민중은 자기의 처지에 승복하지 않고 사회적 정의감은 완전히 파괴된다. 또 부동산 투기나 투기성 투자 따위로 부를 늘리는 분위기일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처지에 승복하지 않는다. 그런 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부의 획득이 오래 지속되고 그 사회의 일반적 분위기를 이룰 때, 그 방법으로 부를 늘리지 못하는 사람은 좌절감을 맛본다. 가난한 자뿐 아니라 부자도 마찬가지다. 부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구조가 교육 제도에도 적용되었을 때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헤어날 수 없는 부당한 억압이 어린 학생들을 좌절케 할 수 있다. 사실 그런 사회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 혼란이 생긴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하는 규범이 서지 않는다. 또는 엉뚱한 것, 곧 돈이나 권력이 잭대가 된다. 정의가 무엇이

나에 대해 일반적 합의가 없는, 또는 ‘돈이 정의지’라고 합의를 본 사회는 불안한 사회다. 어떤 보편규범의 통제 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때 문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므로, 믿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된다. ‘눈’을 보지 않고 ‘눈치’를 보는 사회가 된다.

좌절감이 종말의 아편으로도

사회적인 좌절감이 밖으로 표출되는 모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회적 폭력이다. 그 폭력은 어떤 이념하에 잘 규합되면 혁명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의감의 발동 없이 단순한 사회적 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폭동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것은 단순한 가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에서 초래한 승복할 수 없는 부당한 불이익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인은 미국 사회 구조악의 희생양이었다. 즉 흑인의 폭력이 미국 사회 전체에 번지지 않고 해소(카타르시스)되도록, 변혁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해소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종교다. 그때 종교는 민중의 아편 역할을 한다. 이 세상에 눈감도록 한다. 구원이 어디 이 세상에 있느냐고 한다. 더 나아가면 이 세상을 떠나도록 부추긴다. 잘못된 초월 관념으로 좌절감을 해소시킨다. 몇년 몇월 몇일에 이 세상을 떠나리라는 믿음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신념, 좌절감에서 비롯된 신념에서 나올 수 있다. 칸트가 말한 대로,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 떠나야만 한다면 떠날 수 있다. 떠나리라는 믿음이 기정 사실화된다.

참된 기독교가 저야 할 책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 역할을 하지는 않는지? 그 역할은 모든 종교가 언제나 안고 있는 위험이다. 구조는 바뀌지 않고 좌절감만 해소시키는 역할은 원시 종교 이래로 모든 종교가 빠지기 쉬운 부정적 측면이다. 기독교는 그래서 안 된다. 기독교의 수많은 위인들이 끊임없이 경고한 점이 그것이다. ‘그때’가 ‘이때’에 주는 윤리적 역동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며,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라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가 한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만 우리 뜻대로 된다. 우리가 무슨 맘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운명과 역사는 우리가 개척한다. 그것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아(롬 8, 15) 주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다. 주인의 아들은 주인이다. 이제 기독교인은 자기 삶과 역사의 주체(주인된 몸)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사회를 성숙하게 한다.

사실 사회 정의 문제는 교회의 책임이다. 문화의 실체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흔히 문화라면 ‘멋’을 연상한다. 그런데 그 사회가 어떤 모양의 멋을 창출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냐에 달렸다. 멋은 가치의 문제다. 곧 멋은 윤리에(도덕이 아닌) 바탕을 둔다. 가치는 삶의 의미의 문제다. 삶의 뜻이 있어야 살 맛이 있다. 그러므로 ‘멋’은 살 ‘맛’이다. 살 ‘맛’ 곧 삶의 의미는 종교가 감당한다. 종교란 삶의 뜻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의 핵심은 초월이다. 결국 그 사회의 종교가 어떤 모양의 초월성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문화 형태가 결정된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문화란 심미적인 멋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윤리의 문제다. 사회 윤리는 사회 정의의 문제다. 그러므로 그 사회에 불의가 판치고 있다면 초월 모습이 잘못 정립되어 있다는 얘기다. 교회가 부패했거나 엉뚱한 초월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다. 폭력이나 도피를 낳는 좌절감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생각은 초월이다. 아무 의식 없이 살다가 의식을 찾는다. 의식화다. 생각을 통해 삶의 뜻을 찾고, 왜 이래야 되는가를 묻는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다가 생각을 통해 ‘좋은 게 결코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음’을 깨닫는다. 1차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서서 삶의 뜻에 비추어 방향을 잡는다. 그래서 생각은 초월이다. 초월은 ‘뜨는’ 것이라기 보다는 ‘넘어서는’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있던 담을 넘어서는 것이 초월이요, 1차적 욕구를 넘어서는 것이 초월이다. 거기에는 결단이 따른다. 거꾸로 갈 줄 아는 결단이다. 그래서 윤리다. 생각은 초월이요 윤리다.

성서의 하나님은 원시 종교와 달리 ‘말씀’이다. 말씀이므로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하려면 생각해야 한다. 그 생각하는 중에 실존이 들어가고 삶의 뜻이 들어가고 결단이 들어간다. 믿음의 결단은 거기서 나온다. 물론 해석의 여지가 없는 즉각적인 신 체험이 있을 수 있다. 종교 체험은 즉각적이다. 무슨 추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생각은 거친다. 뜨거운 감정도, 그것이 정말 말씀인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면 삶의 뜻과 관련된다. 그래서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남과의 관계 안에서 만난다. 물론 나 혼자 만난다. 그러나 내 안에는 이미 남이 들어와 있다. 삶의 뜻, 남과 관계 이 모든 것은 기독교 신앙을 생각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윤리적 종교로 만드는 요소다.

기독교가 지닌 단순성의 결

기독교의 믿음이 생각이라고 해서, 무슨 고상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상하다기 보다는 단순하다. 그러나 그 단순성은 동화 같은 말썽을 따라 결단하는 단순성이지, 당시 언어의 지식을 믿는 단순성이 아니다. 윤리적 단순성이지 형이상학적 단순성이 아니다. 윤리적 단순성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살 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지만 형이상학적 단순성은 교조주의를 키워 피곤한 세상을 만든다. 생각은 지식의 차원 곧 유식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삶의 뜻, 세상의 뜻과 관련된 통일성에서 나오는 판단력을 가리킨다. 무지한 팔순의 노인이 얼마나 판단력이 뛰어난지! 그래서 생각은 민중적이다. 신앙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게 하여 창조적으로 만든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왜 신앙을 생각과 거리가 먼 것으로 만드는지, 왜 기독교인을 자꾸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생각을 경시하는 풍조, 학문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풍조가 나라를 즐먹는다. 물론 탁상공론의 학문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말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본능적인 이기심만 남는다. 1차적인 욕구 충족을 곧 축복으로 생각한다. 남이 다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본다. 초월을 모른다. 윤리가 없다. 사회 정의가 없다. 그런 종교는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그런 분위기에서 큰 사상이 나오기 어렵다. 사상이 없는 민족은 사상이 있는 민족에게 당해 낼 수가 없다. 사상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을 설득할 만한 삶의 뜻을 제공한 것이다. 결집의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구한말 우리는 사상의 공백기에 있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시한부 종말론을 조장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의 위기를 느낀다.

기독교인은 마지막 때를 산다. 그러나 '때의 마지막'을 꿈꾸고 허공에 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마지막 때'를 산다. '때'는 언제나 무엇을 '할' 때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엡 1:23) 그분의 "때가 왔으니"(엡 1:9) 우리는 지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